

of Job's property. In the process of this research, the dual function of Job 1:1-5 was identified not only as a small intro to the introduction (chaps. 1-2) but also as an intro to the whole book (chaps. 1-42). The conclusion was also reached that the writer of the book of Job tried to propose a religious message through this literary structure and rhetorical devices: 'Elohim' as a common god of the Ancient Near Eastern world (traditum) is Israel's 'YHWH,' who is the Lord of life, the first and the last, the Creator of the world, and the real giver of blessings (traditio).

Through this study, it was proved that one of the purposes of writing this book is to deliver such a religious message to the Ancient Near Eastern world. This interpretation can help us to understand the timeless lesson of the book of Job and its identity as one of the religious canonical books in the Old Testament.

Keywords

YHWH

Elohim

Jo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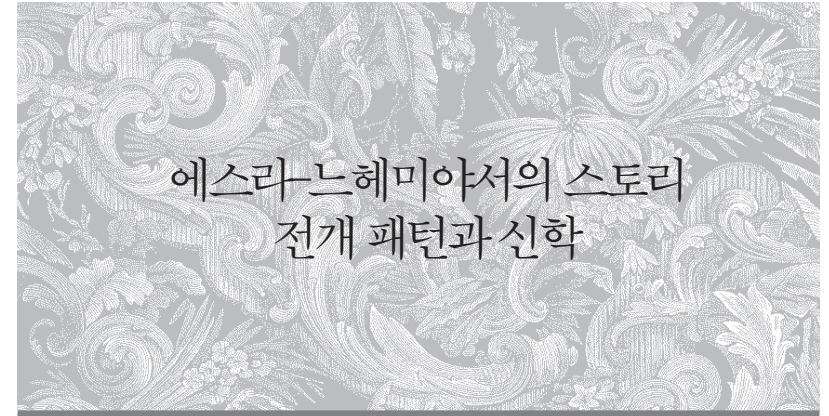
the list of property

inclusio

■ 투고일: 2016년 1월 16일

■ 심사일: 2016년 1월 31일

■ 게재 확정일: 2016년 2월 9일



박철우 (나사렛대)

1. 서론

에스라-느헤미야서의 문학적 구조는 그 책이 담지하고 있는 핵심신학을 반영하며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고 다양한 이해가 제시되어왔다. 특히 에스케나지(Tamara C. Eskenazi)는 에스라-느헤미야서가 두 개의 핵심목록인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이 이 책에서 수미상응(inclusio)을 이루며 이 두 목록 사이에서, 에스라 1장 1-4절의 서언적 내용이 3단계로 실현되고, 이어지는 느헤미야 8-13장이 이 모든 내용의 완성이며 결론부 역할을 한다고 분석하였다.¹⁾ 그러나 벤

* 이 논문은 2016학년도 나사렛 대학교의 연구비 지원과제임.

1) Tamara C. Eskenazi, "The Structure of Ezra-Nehemiah and the Integrity of the Book", *JBL* 107(1988), 641-656; idem, *In an Age of Prose*, (Atlanta: Scholars Press, 1988).

더캄(J. VanderKam)은 에스라 1장 1-4절은 느헤미야서의 중심내용인 성벽재건의 문제를 담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에스케나지의 전개가 지나치게 주관적이라고 말한다.²⁾ 필자는 이러한 그의 비평에 동의하며, 동시에 에스케나지는 에스라 9-10장과 느헤미야 13장이 갖는 내용적 병행과 결론부적 역할을 간과하고 있음도 지적해야 한다고 본다. 트론베이트(Mark A. Throntbeit)는 통시적 접근에 대한 학자들의 실망과 함께 최종본문의 중요성에 다시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현재의 학계의 상황을 언급하면서, 자신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종본문의 신학적 의도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하고자함을 밝힌다.³⁾ 그리고 그는 그의 주석서에서 '무엇이 실제로 일어났는가'라는 문제를 다루는데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는 역사적 접근은 피하려하였다고 말하면서, 카모디(J. Carmody)와 카모디(D. L. Carmody) 그리고 콘(R. L. Cohn)의 저술을 인용하며 고대 역사가들은 이러한 문제들에 거의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언급한다. 그리고 고대역사가들의 관심은 패러다임, 특별한 상징들, 패턴들이며 그들의 독자들은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과거를 현재로 가져오고, 미래를 향해 스스로를 준비한다는 것이다.⁴⁾ 에스라-느헤미야서에는 이러한 패러다임이 있으며 회복의 세 신학적 순간들을 세 개의 병행적 '귀환'으로 서술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바로 스투바벨(스 1-6)과 에스라(스 7-10)와 느헤미야(느 1:1-7:3)의 귀환이라고 본다. 그리고 각각은 성전, 율법, 성벽의 재건을 이루는 데, 동일한 패턴을 갖고 전개된다고 본다.⁵⁾ 그는 이 부분(스 1:1-느 7:3)을 에스

2) J. VanderKam, "Ezra-Nehemiah or Ezra and Nehemiah?", *Priests, Prophets, and Scribes: Essays on the Formation and Heritage of Second Temple Judaism in Honour of Joseph Blenkinsopp*, ed. Joseph Blenkinsopp, (Sheffield: JSOTPress, 1992), 55-77.
3) Mark A. Throntbeit, *Ezra-Nehemiah*, Interpretatio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2), 3.
4) Mark A. Throntbeit, *윳글*, 3; J. Carmody, D. L. Carmody, R. L. Cohn, *Exploring the Hebrew Bible*,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88), 413.
5) Mark A. Throntbeit, *윳글*, 3-4 (1. 하나님의 역사로 인도된 페르샤 왕의 허락으로 주어진 귀환; 2. 재건에

라-느헤미야서의 첫 번째 큰 단락으로 보고 이것의 중심 주제를 '귀환과 재건'(Return and Restoration)으로 본다. 그리고 두 번째 큰 단락(느 7:4-12:43)은 '갱신과 개혁'(Renewal and Reform)으로 보고, 세 번째 큰 단락(느 12:44-13:31)⁶⁾을 결론부(coda)로 보고, 개혁과 부정적 재발 사이의 긴장을 유지하며 독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신앙생활 속에 계속적 헌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하였다고 본다.⁷⁾

민경진은 '에스라-느헤미야서의 문학적 구조분석'에서, '에스라-느헤미야서의 단일성'을 전제로, 이 책의 목적을 개혁의 필요와 선포로 본다. 이 책의 구조를 에스라 1장-느헤미야 12장과 느헤미야 13장을 나누어, 전자(스 1-느 12)를 '개혁이야기'로 보고, 후자(느 13)를 '계속되어야 할 개혁'으로 본다.⁸⁾ 즉 이 구조를 '개혁에 대한 당위성'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에스라-느헤미야서를 어떤 관심과 시각에서 읽을 것인가에 따라 다양한 구조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⁹⁾ 좀 더 최근에 슈타인만(Andrew E. Steinmann)은 그의 주석서에서, 에스라-느헤미야서가 한 권인가 두 권인가의 논의가 확실한 결론을 얻기가 어려운 논제임을 인정하며, 이 책이 두 권의 서로 다른 책이라는 점에 방점을 둔다. 그 근거로 특히 느헤미야 1장 1절의 서두표 현과 포로 귀환자 명단의 이중적 사용(스 2장과 느 7장)을 예로 든다.¹⁰⁾ 그는 이 책들의 구조 이해에 있어 주로 내용자체의 분석에 초점을 맞추

대한 반대; 3.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반대를 극복함).

6) Mark A. Throntbeit, *윳글*, 4(트론베이트는 느 5:1-19를 여기에 포함시키나, 이 본문은 그 콘텍스트에서 고 유한 문학적 기능을 감당한다: 아래 설명참조).
7) Mark A. Throntbeit, *윳글*, 4.
8) a. 성전 개혁(스 1-6장); b. 공동체 개혁 ① - 통혼 문제 (스 7-10장); c. 성벽 개혁(느 1-7장); d. 공동체 개혁 ② - 율법과 더불어 (느 8:1-12:26); e. 개혁의 완성(느 12:26-47); 민경진, "에스라-느헤미야서의 문학적 구조분석", 『에스라-느헤미야 어떻게 읽을 것인가?』, HOW 주석 (서울: 두란노, 2009), 35-45.
9) 민경진, *윳글*, 45
10) Andrew E. Steinmann, *Ezra and Nehemiah*, Concordia Commentary, (Saint 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2010), 20-21.

어 전개하며, 이 두 책의 서로 다른 구조적 특징을 제시한다.¹¹⁾ 필자는 본 논문에서 에스라-느헤미야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구조이해와 함께, 본문 편집자의 문학적 구성의 방식, 스타일과 패턴이라는 관점에서 도 고려하여 이 문학 구조체(최종 본문으로서의 에스라-느헤미야서)의 구조 이해와 문학적 구성요소와 신학을 명료히 하고자 한다.

2. 에스라-느헤미야서의 구조적 특징

1) 문학 구조체 에스라-느헤미야서의 전체적 조망

에스라-느헤미야서는 크게 세 개의 단락으로 구별될 수 있다(스 1-6; 7-10; 느 1-13).¹²⁾ 특히 이 세 단락은 각 단락의 중심인물과 시대적 관점에서 구별된다(스룹바벨, 주전 6세기말 상황; 에스라, 주전 5세기 후반 상황; 느헤미야, 주전 5세기 후반 상황).¹³⁾ 필자는 본문의 관찰에 있어 전개의 순서와 내용적 문체적 특징을 복합적으로 관찰한 결과 각 단락에서 나타나는 스토리 전개의 문학적 패턴(literary pattern: ‘서언적 설명문’-‘인용문’-‘초기의 부분성취’-‘목록’-‘시행’-‘방해’-‘극복[성취]’-‘감사봉헌제사’)을 관찰하였다.

(1) 위의 각 단락들(스 1-6; 7-10; 느 1-13)은 우선 서론부, 본론부(성취과정), 결론부의 기본 틀을 가지고 있다. 우선 서론부는 ‘서언적 설명문 + 인용문’의 구조로 구성되어있음을 보여준다. 서언적 설명문

11) 윗글, 64-78

12) Mark A. Throntbeit, 윗글, 9-10; Joseph Blenkinsopp, *Ezra-Nehemiah*, OTL, (London: SCM, 1988); Leslie C. Allen, Timothy S. Laniak, *Ezra, Nehemiah, Esther*, (Peabody: Paternoster Press, 2003), 4-7; Sara Japhet, "Composition and Chronology in the Book of Ezra-Nehemiah," D. J. A. Clines/P. R. Davies(eds), *Second Temple Studies 2: Temple and Community in the Persian Period* (JSOTSup., 175), (Sheffield: JSOT Press, 1994), 190.

13) Mark A. Throntbeit, 윗글, 2-3.

	구조적 특징 (스토리 패턴)	에스라 1-6	에스라 7-10	느헤미야 1-13	느 1-13의 특징요소
서론부	서언적 설명문	스 1:1	스 7:1-11	느 1:1-4	
	인용문	스 1:2-4(칙령)	스 7:12-26 (칙령)	느 1:5-11	기도
본론부 (성취과정)	초기의 부분성취	스 1:5-11	스 7:27-28	느 2:1-20	율법 (느 7:4-12:26)
	목록	스 2:1-70	스 8:1-20	느 3:1-32 (시행포함)	
	시행	스 3:1-13	스 8:21-30	느 3:1-32	
	방해	스 4:1-24	스 8:31	느 4:1-6:14	
결론부	극복(성취)	스 5:1-6:15	스 8:32-34	느 6:15-7:3	기도포함
	감사봉헌제사	스 6:16-22	스 8:35-36	느 12:27-43	
	율법과 치리		스 9:1-10:44 기도(율법) + 치리	느 12-44-13:31 율법 + 치리	

은 각 단락의 도입부의 역할을 한다. 이 세 단락은 각각 사건이 일어났을 때를 가리키는 말로 시작된다.

- ① 에스라 1장 1절: 비슈나트 아하트 르코레슈(בִּשְׁנָא גֹרְסָא 고레스 원년에)
- ② 에스라 7장 1절: 베말쿠트 아르타흐샤스트(בְּמַלְכוּת אֲרַחְשָׁא 아닥사스다 왕위에 있을 때)
- ③ 느헤미야 1장 1절: 베호데슈 키슬레프(בְּחֹדֶשׁ כִּסְלֵאֵף 월에).

이것은 이 책이 3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있는 책임을 명백히 보여준다. 이어서 나오는 인용문(스 1:2-4[칙령]; 스 7:12-26[칙령])은 에스라 1-6장과 7-10장에서 각각 ‘왕의 칙령’으로 나온다. 전자는 페르샤의 고레스 왕(주전 550-530)의 칙령이고 후자는 페르샤의 아닥사스다 왕(주전 465-424)의 칙령이다. 우선 서론부의 이 순서와 내용의 병행은 이 두 단락의 상호 유기적 의존성을 보여준다. 느헤미야 1-13장도 인용문이 이어진다는 차원에서 이 두 단락과 동일하다. 그러나 이 경우는 기도의 내용을 인용한다는 차이점을 보여 준다. 그러나 그 문학적 전

개의 순서(literary sequence)는 동일하다.

(2) 본론부는 다섯 개의 문학적 내용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서론부에서 선포된 내용의 부분적 성취; 목록; 시행; 방해; 극복[최종적 성취]). 에스라 1-6장과 7-10장에서 각각의 중심 주제가 동일한 순서와 형식을 가지고 전개되는 문학 패턴을 보여준다. 서론부에 이어서 이것의 부분적 성취가 언급되고(스 1:5-11; 스 7:27-28), 각각 이를 강화하며 다음의 주제(‘시행’[스 3:1-13; 스 8:21-30])로 넘어가는 전환부에 ‘목록’이 나온다(스 2:1-70; 8:1-20). 이러한 면모는 느헤미야서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된다(‘초기의 부분적 성취’[느 2:1-20] + ‘목록’[느 3:11-32]). 다만 느헤미야서에서는 이 ‘시행’이 ‘목록’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특징이 나타날 뿐이다.¹⁴⁾ 그리고 이 세 개의 단락은 각각 ‘방해’와 ‘극복(성취)’이라는 스토리 전개의 과정과 결말을 보여 주는 공통점도 갖고 있다. 이러한 내용적 문체적 전개의 순서상의 일치성(sequential coincidence)은 이 세 단락이 동일한 문학적 편집방식에 의해 기록된 것임을 보여 준다. 이제 나머지 결말부분도 동일한 문학패턴이 기대되는 것이다.

(3) 이 세 단락은 동일한 결론적 요소를 담고 있다(‘감사봉헌제사’[스 6:16-22; 스 8:35-36; 느 12:27-43]). 이 경우 에스라 1-6장과 7-10장은 동일한 순서로 내용을 전개한다. 그러나 느헤미야 1-13장의 경우에는 ‘극복’(성취[느 6:15-7:3])과 ‘감사봉헌제사’(느 12:27-43) 사이에, ‘율법’을 근본 주제로 하는 별도의 단락이 삽입되어 있다는 특징을 보여 준다(느 7:4-12:26). 이것은 중앙집중구조(A-B-A’ 삼단양식 구조)로 구성되어 고유한 신학적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에스라 1-6장과 연결되어 있는 에스라 7-10장의 경우와 느헤미야 1-13장, 즉 주전 5세기 지도자인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활동과 직접적

으로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에스라 7-10장과 느헤미야 1-13장은 별도의 병행되는 ‘결론부’를 담지하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율법과 현실치리’[스 9:1-10:44; 느 12:44-13:31]). 이러한 병행적 요소들과 이를 바탕으로 한 스토리 전개 패턴은 이 세 문학 단위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단일한 한편의 책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 문학 구조체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1. 세 개의 병행단락: ABC[스 1-6] // A'B'C'[스 7-10] // A"B"C"[느 1-13]; 2. 두 개의 전체적 결어: X[스 9:1-10:44] // X'[느 12:44-13:31]).

① 에스라 1-6장

- A. 서론부 (1:1-4 【서언적 설명문[1:1] + 인용문[1:2-4, 칙령】)
- B. 본론부 (성취과정[1:5-6:15] 【초기의 부분 성취[1:5-11]; 목록[2:1-70]; 시행[3:1-13]; 방해[4:1-24]; 극복[5:1-6:15】)
- C. 결론부 (6:16-22 【감사봉헌제사(6:16-22)】)

② 에스라 7-10장

- A'. 서론부 (7:1-26 【서언적 설명문[7:1-11] + 인용문[7:12-26】)
- B'. 본론부 (성취과정[7:27-8:34] 【초기의 부분적 성취[7:27-28]; 목록[8:1-20]; 시행[8:21-30]; 방해[8:31]; 극복[8:32-34】)
- C'. 결론부 (8:35-10:44 【감사제사[8:35-36】)

X. 율법과 현실적 치리(9:1-10:44 【율법(기도) [9:1-15]; 치리 [10:1-44】], 에스라 7-10장 및 1-10장의 전체적 결론부).

14) 아래 설명 참고.

③ 느헤미야 1-13장

A". 서론부 (1:1-11 【서언적 설명문[1:1-4] + 인용문[1:5-11]】)

B". 본론부[성취과정] 【초기의 부분적 성취[2:1-20]; 목록[3:1-32, 시행 포함]; 방해[4:1-6:14]; 극복[6:15-7:3]】 + 【율법[7:4-12:26]】)

C". 결론부 (12:27-13:31 【감사봉헌제사(12:27-43)】)

X'. 율법과 현실적 치리 (12:44-13:31 【율법[12:44-13:3]; 치리 {기도} [13:4-31]】), 느 1-13장과 에스라-느헤미야서 전체의 결론부).

2) 문학 구조체(에스라-느헤미야서)의 개별적 단락의 구조와 내용적 특징

(1) 에스라 1-6장의 구조

에스라 1-6장¹⁵⁾은 에스라 1장 1-4절과 6장 16-22절이 '수미상응'을 이루며 하나의 문학 단위(literary unit)를 형성하고 있는 본문이다.¹⁶⁾ 그리고 에스라 1장 1-4절에서 선포된 내용을 기초로 나머지 다른 부분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서술해 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서론부(스 1:1-4)는 '서언적 설명문(1절) + 인용문(2-4절[칙령])'의 구조를 갖고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이 그 다음 이어지는 본문에 반영되어 전개된다.

15) 윌리엄슨은 이것을 가장후기(주전 300년경)에 기록되어 첨가된 부분으로 본다(H. G. M. Williamson, *Ezra-Nehemiah*, WBC, Nashville: Thomas Nelson, 1985, xxxii-xxxvi). 트론베이트도 이를 수용한다(Mark A. Throntbeit, *윗글*, 9-10; 그러나 이 주장은 아직 미해결과제이다. 필자는 여기에서 최종본문의 문학구조에 초점을 맞춘다.

16) 아래 참조.

이러한 내용의 부분적 성취가 에스라 1장 5-11절에 언급된다. 여기에서 고레스의 명령이 성취된다. 포로민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기 위해 떠난다(1:5). 금은 가축 세간 특히 자원예물을 받는다(1:6). 이웃사람들이 도운 것이다(1:6). 특히 에스라 1장 1-4절의 성전건축명령이 성전제사를 전제로 한 것이며 따라서 주의 성전에 속해 있던 여러 가지 그릇들을 느부갓네살의 신전에서 꺼내어 돌려보낸다(1:7-11).

에스라 1장 1-4절과 병행되는 5-11절의 중심내용과 표현들은 다음과 같다.

고레스의 명령(1:1 // 1:7-8); 예루살렘 성전 재건(1:2 // 1:5); 마음의 감동(1:1 // 1:5); 금은, 세간, 가축(1:4 // 1:6, 9-11); 자원제물 (1:4 // 1:6); 포로 귀환(1:4 // 1:5, 11); 이웃사람들에게 도우라는 명령(1:4 // 1:6); 예루살렘(1:2, 3, 4 // 1:5, 7, 11).

이어서 에스라 2장 1-70절에서 귀환자들의 명단이 언급된다.¹⁷⁾ 이 '목록'은 하나님의 이 중대한 귀환역사의 산 증거이며 은혜의 상징으로서 앞의 '초기의 부분성취' 부분과 연결된다. 특히 에스라 2장 68-69절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자원예물과 금과 은에 관한 사항을 다시 언급함으로써 에스라 1장 1-4절과의 유기적 연관성을 보여 준다. 동시에 이 명단은 그 다음 소단락인 에스라 3장 1-13절(시행)을 예비한다. 특히 에스라 2장 70절과 3장 1절과의 병행적 반복¹⁸⁾은 이 명단이 앞에 언급된 내용의 확인 및 증거역할을 하며 동시에 3장 1-13절의 내용을 위한 예비적 자료의 역할을 함을 보여 준다.¹⁹⁾ 에스라 3장

17)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의 편집적 선후 관계, 민경진, "휴 윌리엄슨의 에스라-느헤미야서 편집가설 재고", 『장신논단』, 38집(2010), 55-58; Joseph Blenkinsopp, *윗글*, 43-46.

18) 콜 이스라엘 베아레헴(בְּיִשְׂרָאֵל בְּעִירָהֶם כָּל all Israel in their cities, 2:70) // 브네 이스라엘 베아림(בְּנֵי יִשְׂרָאֵל בְּנֵי בְּנֵי 또는 베아레헴[BHS], sons of Israel in the[their, יָהּם][b BHS] cities, 3:1).

19) 트론베이트는 고향에 돌아온 귀환자들의 첫 번째 행위가 '예배'여야 한다는 신학적 요구가 3장의 내용이 여기에 나와야 하는 이유라고 본다(Mark A. Throntbeit, *윗글*, 22). 그러나 그는 에스라 3장 11절-4장 5절을 한 단락으로 취급한다는 차원에서 필자의 구조이해와 다르다(idem, 22-26).

1-7절에서는 귀환자들이 그들의 본래의 목적대로 제단을 쌓고 제사부터 드리기를 시작한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시작한다.

에스라 4장 1-5절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다루어진다. 6-24절은 1-5절의 내용과 역사적으로 다르다. 이것은 성벽재건과 관련된 내용인데 성전건축의 방해라는 내용과 연결되어 나온다. 이 부분이 왜 1-5절과 연결되어 나오게 되었는지의 이유는 불분명하다.²⁰⁾ 그러나 6절은 아하수에로 시대(주전 486-465)에 유다 주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겪은 대적들의 고발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7-23절은 아닥사스다 시대(주전 465-424)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겪어야 했던 고발의 문제를 '나란히 열거하는 형식으로' 소개한다는 차원에서, 이 단락의 기록자가 이러한 고난은 '늘상 있는 일이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늘 지켜 주셨다는 사실을 후대의 관점에서 논증하기 위해 첨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4절은 에스라 4장 1-5절과 연결되는 내용이며, 에스라 4장 전체는 삼단구조(A-B-A'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 A. 성전 건축공사에 대한 방해(4:1-5, [페르샤 다리우스 왕, 5절]);
- B. 아하수에로와 아닥사스다 시대의 예(6-23절);
- A'. 성전 건축공사에 대한 방해(4:23, [페르샤 다리우스 왕, 24절]).

이어서 이러한 방해에 대한 극복의 내용이 나온다(스 5:1-6:15). 에스라 5장 1-2절에서 예언자 학개와 스가라가 예언을 하며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도왔고 그들은 함께 성전을 재건한다.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닷드네 총독의 상소문으로 인해 성전건축이 방해를 받을 수 있는

20) 윌리엄슨은 저자가 성전건축을 돕겠다는 것을 거절한 이유(스 4:1-5)가, 그들이 '대적'이었기 때문이라는 합리화를 위한 것으로 본다(Hugh Williamson, *유클*, 57); 클라인즈는 '하나님의 계획들에 대한 지방정부의 저항들을 예로 소개하는 것'으로 본다(D. J. Clines, *Ezra, Nehemiah, Esther*, NCBC, (Grand Rapids: Marshall Morgan & Scott, 1984), 76).

상황도 있었으나(스 5:3-17), 결국 고레스의 칙령이 발견되었고(6:1-5), 다리우스 왕(주전 522-486)은 명령을 내려 고레스왕의 칙령대로 성전을 지을 것을 명한다(6:6-12). 이것은 에스라 1장 1-4절 내용의 반복이며, 성취임을 보여준다(고레스 칙령의 이행). 여기에서 다시 에스라 1장 1-4절에 언급된 하늘의 하나님이 다시 언급되면서(스 6:9-10) 이 모든 일은 야웨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역사임을 보여준다. 에스라 6장 13-15절에서 성전 건축공사의 완성을 선포한다. 여기에서 다시 이 소단락(스 5:1-6:15)의 도입부인 에스라 5장 1-2절의 내용을 반복함으로써 '수미상응'을 형성하며 이 소단락의 단일성을 보여 준다.

성전공사의 착수(5:2, 아람어 '슈레' [שׁרַע] 풀다, 시작하다); 5:1, '학개 예언자', '잇도의 아들 스가라')//

성전공사의 완공(6:15, 아람어 '예짜' [עָצַ] 끝마치다, 완성하다, 이루다); 6:15, '학개 예언자', '잇도의 아들 스가라').²¹⁾

이 단락(에스라 1-6)의 결론부인 에스라 6장 16-18절에서 성전봉헌 사실이 명시적으로 언급된다. 19-22절은 이것의 연장선상에 있다(특히 22절). 신학적 차원에서 이 결어 부분에서 에스라-느헤미야 개혁의 주요관심사인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정결예식에 관한 언급은 결론부의 언급으로서 매우 적합한 내용이다. 이것은 에스라 7-10장과 느헤미야 1-13장(이 두 단락의 결론부에서 반영)의 공통의 핵심 관심사이며, 이 주제는 에스라 1-10장과 느헤미야 1-13장의 말미에서 병행으로 전개된다(X [스 9:1-10:44] // X' [느 12:44-13:31]).

21) 대개의 주석서들이 성전봉헌의 단락을 에스라 6장 13절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구별하나 이러한 수미상응(inclusio)구조는 에스라 5장 1절-6장을 15절 하나의 문학단위로 보게 한다. 실제 내용상 에스라 6장 13-15절은 성전 건축의 완성을 다루고 있으며, 봉헌은 에스라 6장 16-18절에서 다루어진다.

성전봉헌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언급된 예레미야와 상응을 이루며, 이어서 이 모든 일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그리고 고레스와 다리우스와 아닥사스다의 칙령에 따라서 행해진 것임을 선포한다(스 6:14).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은 에스라 3장 11절과 5장 5절에서 이미 특별히 고백되고 선포된 내용이다. 그리고 끝으로 에스라 6장 19-22절에서 유월절 이행을 다루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웨의 언급과 아시리아 왕으로 서술된 고레스의 언급과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돌이키셨다(22절)는 언급을 통하여 에스라 1장 1-4절(하나님이 고레스를 감동시킴)과 병행을 이루며 단락전체(스 1-6)를 마감한다.²²⁾ 특히 이스라엘의 기쁨을 언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나타낸다. 에스라 1장 1-4절(서론부) 이후의 나머지 내용들은 이 본문의 성취로서 전개되며 특히 에스라 1장 1-4절과 6장 19-22절의 병행적 관계는 ‘수미상응’으로서 이 승리의 역사는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키는 통해 그 구원의 과정을 마무리한 것과 유사하다. 여기에서는 모세 대신 고레스가 그 도구로 사용된다. 이스라엘에 방해와 위기가 있었으나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은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스 6:16, 22)는 사실이 선포되어 있는 것이다.

(2) 에스라 7-10장의 구조

에스라 7-10장은 에스라 1-6장과 역사적 배경이 다르다. 에스라의 귀환과 그 활동을 다루고 있는 에스라 7-10장의 내용은 성전건축을 다루고 있는 1-6장과 57년의 간격이 있다. 에스라 7-10장의 서론부도 ‘서언적 설명문(스 7:1-11) + 인용문(스 7:12-26[칙령])’의 구조로 이루어져있다. 이어서 그 내용들이 그 이하의 본문에서 연결되어 전개된

22) Joseph Blenkinsopp, *룻*, 131-132.

다. 에스라 7-10장에서의 중심인물은 에스라이며 따라서 그 인물에 관한 간략한 소개가 서언적 설명문의 형식으로 언급되고(스 7:1-11), 이어서 에스라의 사역과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 전개에서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되는 페르샤 왕 아닥사스다의 칙령이 인용문의 형태로 언급된다(스 7:12-26). 그리고 여기에 언급된 핵심적 내용들이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 전개에서 반복되며 성취되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에스라 7장 1-11절에서 에스라는 페르샤 아닥사스다 왕 때의 사람으로 소개된다. 특히 그는 제사장이며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로 소개된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이 선포된다(스 7:12-26). 칙령의 핵심적 내용은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루살렘 귀환 허용’(13-14절), ‘성전과 제사를 위한 재정지원’(15-24절), ‘율법에 따른 치리’(25-26절)의 명령이다.

에스라 7장 27-28절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칙령 선포(스 7:12-26) 이후 ‘초기의 부분적 성취’를 다룬다. 그리고 이것은 ‘초기 부분적 성취’라는 차원에서 에스라 1-6장에서의 1장 5-11절과 병행을 이룬다.

에스라 7장 11절에 나오는 왕의 칙령은 에스라 7장 27-28절에서 다시 다루어진다. 여기(스 7:27-28)에서는 ‘서언적 설명문 + 인용문’의 ‘성취 내용’을 매우 함축적으로 진술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루살렘 귀환의 허용(스 7:13-14)은 에스라 7장 28절에서 다루어지며, 하늘의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성전에 관한 언급(스 7:19, 21, 23)은 에스라 7장 27절에서 다루어진다. 하나님의 보살 피심(스 7:6[야웨, 엘로힘] 2회)과 여기에 전제되어 있는 내용인 ‘야웨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라는 선포(야웨[스 7:10, 11]; 엘로힘[스 7:6, 10, 11, 12, 14, 15, 16, 17, 19, 20, 21, 23, 24, 25, 26])는 에스라 7장 28절에서 병행적으로 요약된다(야웨, 엘로힘: 스 7:27[2회], 28).

이어서 나오는 에스라 8장 1-20절(목록)은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다. 이것은 문체상(목록)으로 에스라 2장 1-70절과 병행을 이룬다. 이 본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확인이며 동시에 증거로서의 역할을 하고(스 7:27-28), 칙령의 시행을 다루는 에스라 8장 21절 이하 본문(특히 21-30절)의 예비적 역할을 한다. 이러한 구조적 병행은 에스라 1-6장과 에스라 7-10장의 병행관계를 보여준다.²³⁾

에스라 8장 21-30절에는 그 이후의 역사적 상황과 과정이 전개된다. 이 본문도 앞의 목록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과, 앞의 목록(스 8:1-20)이 에스라 8장 21절의 전제이며 그 예비적 기능을 하는 본문임을 보여준다. 에스라 8장 20절에서 ‘이들이 모두 등록을 하였다’는 표현에 이어 ‘모두’(כולם כולם)에게 금식을 하라고 선언하였다는 표현을 통하여 앞의 내용과 병행을 이루며 금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사람 ‘전체’임을 강조한다(스 8:20[כול כולם] // 8:21[כול כולם]). 그들은 하나님께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서 그들을 잘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리고(스 8:21-22), 이에 대한 응답을 받았음을 고백한다. 여기에서 다시 서론부(스 7:6)에서 언급된 ‘보살피시는 하나님’(하나님의 손)에 관한 선포가 내용으로서 ‘기초 본문’인 서론부의 내용과 연결된다.

크야드 야웨 엘로하브 יהוה אלהיו יד {하나님 야웨의 손}... 콜 바카샤토 [כול בָּקָשָׁה] (7:6)//
 야드 엘로헤누 יד אלהינו {하나님의 손} אל 콜 메바크샤브 [אל כול בָּקָשָׁה] (8:22).

23) 앞의 도표 참고, 에스라 1-6장; 서언적 설명문(1:1) + 인용문(1:2-4); 초기의 부분적 성취(1:5-11); 목록(2:1-70) // 에스라 7-10장; 서언적 설명문(7:1-11) + 인용문(7:12-26); 초기의 부분적 성취(7:27-28); 목록(8:1-20).

에스라 8장 31절에서는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서 매복한 자들의 습격을 받았음이 언급된다.²⁴⁾ 이 위기의 상황은 이 일을 시행하면서 겪게 되는 고난의 문제를 다룬다. 그리고 이어지는 32-34절에서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내용’ 즉 서론부 칙령의 성취가 진술된다. 그리고 최종적 결어로서 8장 35-36절에서는 제사(대회)가 언급된다. 에스라 8장 36절에서 다시 서론부의 핵심사항인 ‘왕의 칙령(조서)’이 언급된다. 이 부분은 7-8장의 내용이 서론에서 결론에 이르는 ‘착수-완성’의 관계를 나타내며, 수미상응의 관계를 보여준다(왕의 칙령[조서: 니슈타반 하멜레크 הַמֶּלֶךְ נִשְׁטָבָן 7:11-26[11절]] // 왕의 칙령[다테 하멜레크 הַמֶּלֶךְ דָּתָהּ 8:35-36[36절]]).

이러한 전개의 순서와 스토리 전개방식의 일치성(sequential coincidence)은 에스라 1-6장과 7-10장 사이의 병행관계를 잘 보여준다. 이어서 에스라 7-10장과 더 나아가서 1-10장 전체를 아우르는 별도의 결론부(스 9-10)가 나온다.²⁵⁾ 에스라 9장 1절은 앞의 상황이 일단 종료되었음을 암시한다(‘이 일들이 있는 후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신앙쇄신의 필요를 다루기 시작한다. 이스라엘의 삶의 뿌리가 ‘율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이 율법에 합당하지 않았음을 언급한다(스 9:1-5). 따라서 우선 율법에 따른 ‘회개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그리고 에스라는 민족을 위한 회개의 중보를 올린다(스 9:6-15). 그리고

24) 하나님이 그들을 위기의 상황가운데 보살펴 주셔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을 고백하긴 하지만 이것은 그들에게 명백한 위기였다.
 25) 9장과 10장을 하나의 결론 단락으로 읽어야 한다는 주장, 김래용, “에스라 9-10장과 느헤미야 13장의 특징과 역할”, 『구약논단』 통권 38집(2010. 12), 34; D. L. Smith-Christopher, "The Mixed Marriage in Ezra 9-10 and Nehemiah 13: A Study of the Sociology of Post-Exilic Judaeon Community," D. J. A. Clines/P. R. Davies(eds), *Second Temple Studies 2: Temple and Community in the Persian Period* (JSOTSup., 175), (Sheffield: JSOT Press, 1994), 243-265; Tamara C. Eskenazi and Eleanore P. Judd, "Marriage to a Stranger in Ezra 9-10," *Second Temple Studies 2: Temple and Community in the Persian Period*, 267-285. 이 양자의 연관성의 증거로 하나님 경외에 관한 표현인 '하레드'(전를하다, 떨리다, רָחַד)의 병행적 사용(스 9:4; 10:30)과 '사람'(방백들, מַרְבָּעִים)의 병행(스 9:1, 2; 10:8, 14)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 이후의 신앙쇄신과 구체적 치리(개혁)를 언급함으로써 에스라서 전체를 마감한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를 바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교행위를 슬퍼하는 내용이 나온다(스 9:4). 이것은 에스라의 활동이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한 것임을 다시 보여 주는 것으로서 '서론부'(스 7:6, 10, 14, 21, 25, 26)의 내용을 전제로 한 전개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9장에서의 에스라의 회개기도도 이를 전제로 한 것이며(스 9:6-15), 에스라 10장 1-44절에 나오는 죄인들의 추방이라는 엄한 치리도 이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스 10:3), 이것도 앞의 서론부에서 이미 언급된 내용이다(스 7:26). 동시에 이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율법을 파기하는 죄를 지은 백성들(심지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까지도)의 죄와 하나님의 징벌을 언급하고(스 9:1-7), 이어서 하나님의 공로로 '페르샤 왕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게 하였고 무너진 곳을 다시 쌓아 올리게 하시고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게 하셨음'을 고백한다. 또 다시 주의 계명을 어기지 말아야 했으나(14절),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는 죄를 지었음을 고백한다. 이러한 현재의 죄를 평가하며 다시는 주의 계명을 어기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근거로 제시된 것이 바로 '페르샤 왕들의 사랑을 받게 하시어 그들의 삶의 구심점인 "하나님의 성전"(베트 하엘로힘)을 재건하게 하신 것'이다(스 9:9-11; 10:9). 이 기도의 내용은 에스라 1-6장의 내용을 전제로 한 것이다. 에스라 1장 2-4절의 중심내용이 바로 '하나님 성전'(베트 하엘로힘)의 재건이다. 그리고 그 완성이 에스라 1-6장의 말미에서 반복되며 병행을 이룬다(스 6:22[14]).²⁶⁾ 이것이 여기 에스라 9-10장에 반영되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에스라 1-6장에서의 성전건축 완수의 중심인물들이 페르샤

26) 에스라 1장 3-4절[하나님의 성전(베트 하엘로힘)] // 에스라 6장 22절[하나님의 성전(베트 하엘로힘)].

의 왕들이었고(고레스, 다리우스), 이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요약적으로 에스라 9장 9절에 나온다(페르샤의 왕들 מלכי פרסיה 말케 파라스]). 그리고 백성들의 문제에 관한 관심과 그들 가운데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지도자들에 대한 관심의 일치도 에스라 1-6장과 9-10장과의 상관관계를 말해준다(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일반 평민 지도자들 [원로들, 시브י אֲרָמִי 5:5, 9; 6:7, 8, 14] // [원로들, זְקֵנִים 히브리어] 10:8, 14). 방백(표준새번역, 지도자들)으로 번역된 '사립'(שָׂרִיפ)은 에스라 7-10장에서만 나오는 어휘인데(스 7:28; 8:20, 24, 29[2회]), 이 종결부에서 다시 나타난다(스 9:1, 2; 10:8, 14). 에스라 서두에 나온 '유다와 베냐민'은 에스라 말미에서 다시 언급된다(스 1:5; 4:1 // 10:9). 에스라 6장 22절에 나왔던 단어인 '하자크'(חֵצֶק 힘내다)가 종결부인 10장 4절에서 결론적으로 다시 나온다. 이러한 요소들은 에스라 9-10장이 1-10장 전체의 결어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에스라 7-10장은 이와 같이 에스라 1-6장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전개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양자의 차이점은 에스라 7-10장의 말미에 '치리'(개혁) 내용을 언급함으로써 에스라 7-8장의 결론을 보충함과 아울러, 에스라 1-10장 전체의 결론의 기능을 수행하며 에스라서 전체를 닫고 있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느헤미야 1-13장의 최종 결어와 병행을 이룬다(X // X').²⁷⁾

(3) 느헤미야 1-13장의 구조

느헤미야서의 기본구조도 에스라 1-6장과 에스라 7-10장과 마찬가지로 '서언적 설명문'으로 시작하고(느 1:1-4) 이어서 '인용문'(느 1:5-11)이 나온다. 그러나 에스라 1-6장과 7-10장의 경우, 각각 페르샤 왕의 '칙령'이 언급되고 있으나, 느헤미야서에서는 느헤미야의 '기도문'

27) 아래 참고.

이 ‘인용문’으로 나온다. 느헤미야 자신의 기도가 느헤미야서 전체의 중요한 문체적 특징임을 감안하면(짧은 기도문: 느 5:19; 6:14; 13:14, 22, 29, 31; 긴 기도문: 1:5-11; 9:5-37), 이 변화는 자연스럽다.

느헤미야 1장 1-4절은 이 책의 서언적 설명문으로서, ‘때’를 나타내는 표현과 함께(참고, 스 1:1; 7:1),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 다’라는 말로 서두를 시작한다. 이로서 이 책이 느헤미야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건들을 다루는 책임을 암시하며, 느헤미야 활동의 배경이 되는 시대상 곧 예루살렘 성벽재건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이어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한 그의 기도가 이어진다(느 1:5-11).

그 핵심적 내용들이 그 다음 소단락인 느헤미야 2장 1-20절에서 부분적으로 성취된다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응답[스 1:6 // 2:8]; 왕의 자비를 입게하심[1:11 // 2:8-10]; 예루살렘으로의 귀환[1:8-11 // 2:11]). 느헤미야서에 13회 나오는 ‘하늘의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 두 단락 사이의 병행을 이루며 밀착되어 나온다는 사실은 이 두 단락 사이의 상호 연결을 보여준다(느 1:4, 5, 9 // 2:4, 20).²⁸⁾

이어서 느헤미야 3장 1-32절에서 예루살렘 성벽재건 참여자들의 목록이 나온다. 이 목록은 느헤미야 2장 16-18절에서 언급되는 ‘유다 사람들’, ‘제사장들’, ‘귀족들’, ‘방백들’, ‘일하는 자들’을 명시적으로 밝힌다(‘일반적 명칭’ → ‘구체적 이름거명’).²⁹⁾ 이것은 하나님의 성취의 역사를 선명하게 입체화하며, 느헤미야 2장 20절의 말씀과 기도응답의 증거의 역할을 한다. 동시에 느헤미야 3장의 목록은 건축자들과 적들과 싸울 용사들(4장 이하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언급함으로써 4장 이하의 내용을 입체화한다.³⁰⁾

28) 이 표현은 에스라서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위치에 2회(스 1:2[서두]; 9:6[기도문]) 나오고, 나머지 느헤미야서의 중심 기도문(느 9:6[하늘, 4회], 13, 23, 27, 28)에 나온다. 느 9장 이외에는 1-2장에서만 나온다.

29) Mark A. Throntbeit, *유태, 77-78*; Hugh Williamson, *유태, 201-202*; 김래용, “느헤미야서에 나타난 목록들의 연구”, 136.

30) 김래용, *유태, 136-137* ([그들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기능”, 137).

여기에서 나타나는 느헤미야서의 특징적 면모는 이 목록에 ‘시행’의 내용이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건축하고’(바나[בָּנָה], 3:1[2회], 2[2회], 3, 13, 14, 15); ‘달고’(아마드[אָמַד], 3:1, 3, 6, 13, 14, 15); ‘중수하였고’(하자크[חָזַק], 3:4[3회], 5, 6, 7, 8[2회], 9, 10[2회], 11, 12, 13, 14, 15[2회], 16, 17[2회], 18, 19, 20, 21, 22, 23[2회], 24, 27, 28, 29[2회], 30[2회], 31, 32). 이처럼 명백하게 ‘목록’ 안에 ‘시행’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을 별도로 다룰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이어서 전개되는 내용은 에스라 1-6장과 7-10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방해’의 문제이다. 여기에서는 느헤미야가 성벽재건을 하며 겪게 되는 문제를 삼단양식적 구조(A-B-A')로 다룬다.

A. 외부로부터의 문제(4:1-23)

B. 내부의 문제(5:1-19[이스라엘의 죄])

A'. 외부로부터의 문제(6:1-14)³¹⁾

우선 A(느 4:1-23)에서 적들의 적극적 방해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 방어책을 논한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힘과 역사의 근원이심이 고백된다. 4-5절에 나오는 기도는 이러한 믿음을 전제로 한 간구이다. B(느 5:1-19)에서는 신명기적 언약법이 이행되지 않아서 야기된 윤리적 죄와 느헤미야의 술선수범하는 헌신과 희생을 다룬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이 모든 일을 기억해 달라는 간구의 말씀을 드린다(느 5:19). 여기에서 다루어지는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는 ‘이스라엘에게 아직 율법과 신앙쇄신의 필요함’을 암

31) 슈타인만은 느헤미야 4장 1절-6장 14절의 ‘위협’의 요소를 세 단락으로 구분한다(4:1-23; 5:1-19; 6:1-14), 이들의 유기적 상관관계를 설명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느헤미야 5장 1-19절을 ‘내부적 위협’이라고 명시한다(Andrew Steinmann, *유태, 73*); 홀그렌은 이 본문을 셋으로 구분하고(4:1-23; 5:1-19; 6:1-19), 이를 각각 ‘외부적 방해, 내부적 방해, 외부적 방해’라는 차원에서 이해한다(Fredrick Carlson Holmgren, *Israel Alive Again, Grand Rapids: Eerdmans, 1987, 105-119*).

시한다. 이것이 ‘감사봉헌제사’ 진술을 유보하고 ‘율법’ 문제를 먼저 도입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된다. A'(느 6:1-14)에서 다시 외부로부터 온 문제를 다룬다. 9절과 14절에서 하나님께 힘을 간구하며 적들의 행악도 잊지 말아달라고 간구한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이러한 방해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승리와 힘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자신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이러한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벽재건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완성(성취)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다(느 6:15-7:3). 여기까지의 스토리 전개 순서와 패턴은 에스라 1-6장과 7-10장과 유사하다.³²⁾ 그러나 이 책(느 1-13)은 이렇게 바로 마무리 되지 않는다. 스토리 전개의 순서상 기대되는 ‘감사봉헌예배’는 느헤미야 12장 27-43절까지 유보된다. 여기에서는 위협의 상황이 아직 지속되는 상황에 대한 언급과, 느헤미야가 경비를 서게 하였다는 내용이 나온다(느 6:15-7:3).³³⁾ 이것은 아직 그들에게 안정이 없는 상황을 나타낸다. 이와 함께, ‘방해’에 해당되는 앞의 본문(느 4:1-6:14), A-B-A' 구조체의 중심(B: 내부의 문제[5:1-19])에 언급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죄’는 느헤미야 7장 4절부터 시작되는 별도의 소단락, 곧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쇄신과 율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별도의 소단락(느 7:4-12:26)을 예비하는 역할을 한다. 아직 하나님의 말씀과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강건한 믿음이 필요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느 8:1-12:26). 성전봉헌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러한 준비가 더 필요했던 것이다.³⁴⁾ 그들은 회개와 정결함을 받아야 했고 그 공동체는 개혁되고 쇄신되어야 했다(느 8-10; 느 12:30). 아직 위협 가운데 있었으며 동시에 아직 신앙쇄신과 정결이 필요한 이스라엘에게

32) 서언적 설명문(1:1-4) + 인용문(1:5-11); 초기의 부분적 성취(2:1-20); 목록(3:1-32); 방해(4:1-6:14); 극복(6:15-7:3).
 33) 이 본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① 성벽공사의 완공(6:15-16); ② 내외부의 위협적 상황의 존속 상황 서술(6:17-19); ③ 경비를 세움(7:1-3).
 34) 김래용, “느헤미야서에 나타난 목록들의 연구”, 140.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었고, 죄의 고백과 새로운 신앙적 결단이 필요하였고, 이 특별한 별도의 전개(느 7:4-12:26)라는 문학적 변화를 통하여 이를 강조할 수 있었다.

A. 7장: 백성들의 명단
 B. 8장: 말씀; 9장: 죄의 자백(기도); 10장: 결단³⁵⁾
 A', 11:1-12:26: 백성들의 명단.

이 단락(느 7:4-12:26)의 구별성은 이 단락의 앞과 뒤에 나오는 병행적 연결에서 볼 수 있다(S // S').

S. 느 6:15-7:3 (성벽 재건의 완성[바티술람 하호마 הַחֹמָה, 6:15])
 T. 느 7:4-12:26 (A-B-A' 구조체)
 S'. 느 12:27 (성벽 봉헌의 때[바하누카트 호마트 חֹמַת עֵרֶוּשָׁלַיִם]).

‘성취’(극복)를 서술하고 있는 느헤미야 6장 15-7장 3절의 핵심표현인 ‘성벽재건의 완성’(바티술람 하호마)이라는 말은 느헤미야 6장 15절과 7장 1절에 나오고, 이 별도의 단락(느 7:4-12:26)을 건너 뛰어서, 오직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다시 나온다(‘성벽봉헌의 때’[바하누카트 호마트 예루살라임]; [S // S']). 이것은 느헤미야 7장 4절-12장 26절이 하나의 문학적 단락임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35) 윌리엄슨은 느헤미야 8-10장을 편집자의 신학적 의도를 잘 표출하고 있는 단락으로 보며, 이 세 장은 율법선포(느 7:72b-8:18[The Reading of the Law])—고백과 회개(9:1-37[Confession])—언약갱신(10:1-40[A Pledge to Keep the Law])을 다루며, 율법과 회개와 언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본다(Hugh Williamson, *유태*, 275-280); 브린먼은 느헤미야 7장 73b절-10장 39절을 ‘The Covenant Renewed’를 다루는 한 단락으로 보며, 그 단락을 4개로 구분한다(7:73b-8:12; 8:13-18; 9:1-37; 9:38-10:39). Mervin Breneman, *Ezra, Nehemiah, Esther*, NAC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3); 참고, 트론베이트(Mark A. Throntbeit)도 유사한 구조를 보여준다(7:72b-8:12; 8:13-18; 9:1-10:39); 반 바이크보스는 이 단락을 셋으로 구분한다(8:1-12; 8:13-9:37; 9:38-10:39). Johanna W. H. van Wijk-Bos, *Ezra, Nehemiah, and Esther*,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8), 70-86.

이 특별 단락(A-B-A' [느 7:4-12:26]) 안에서, 7장(A)과 11-12장(A')은 이 단락의 서두와 말미에서 서로 병행을 이루며 그 고유한 내용을 강조하며 동시에 그 중심내용(B[8-10장])과 연결된다. 특히 느헤미야 7장 4절에서 성읍이 크고 넓으나 인구가 얼마 안 되었음을 강조한다. 이것은 느헤미야 11장 1절-12장 26절에서 성읍에 자리 잡은 사람들의 명단과 '수미상응'을 이루며, 내용상 삼단양식의 틀 속에서(A-B-A'),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한 단락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내용의 전개에 앞서 7장(느 7:4-73)에서 공동체의 합법성과 연속성과 결속력을 강조하기 위해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온다.³⁶⁾ 7장(A, 과거)과 11-12장(A', 현재)의 목록은 공동체의 '과거' 뿌리와 공동체의 '현재' 상황이라는 공동체의 거룩한 삶의 연속성과 결속성을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³⁷⁾

이 단락의 중심부(B, 8-10장)에서는 그들의 삶의 절대적 중추인 율법과 신앙쇄신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8장에서 에스라의 율법선포가 언급된다. 느헤미야 7장 73절의 내용이 8장 1절에서 요약적으로 반복되며 서로간의 내용적 연결성을 보여준다. 느헤미야 7장 73절(제사장들, 레위인들,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 느다님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온 이스라엘'[콜 이스라엘 כָּל־יִשְׂרָאֵל])에 언급된 사람들이 이제 8장 1절에서는 '그 온 백성'([콜 하암] כָּל־הָעָם, all the people)이란 표현으로 요약되며 앞의 내용을 잇는다.³⁸⁾ 이것은 느헤미야 7장 4-73절의 명단이 8장 1절 이하 본문의 예비적 언급에 해당됨을 보여준다. 즉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필요로 하였으며 그들이

'모두' 이 말씀을 듣는 일에 참여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들은 에스라의 율법의 가르침을 듣고 울며 깨달았고 그 깨달음의 기쁨을 얻었다(느 8:9, 12, 17).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죄를 자백하며 야웨 하나님을 경배하였다(느 9:1-5). 그리고 죄를 자백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온다(느 9:5-37). 느헤미야 9장에서는 예언자들의 사역(느 9:26, 30, 32)과 영(느 9:20, 30)이 강조된다(스 1:1, 5). 그리고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느 9:13-14, 26, 34),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며 절대적 주권과 권능의 주님이시고(느 9:10-12, 32), 공흠과 은혜의 하나님이시고(느 9:31) 복의 근원이심을 고백한다(느 9:25, 35). 그들은 이를 인정하며 언약을 세웠다(느 9:38; 언약의 하나님[느 9:32]). 이어서 언약에 서명한 사람들(지도자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의 명단이 나온다(느 10:1-27). 이들의 언급은 지도자들의 솔선수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 밖의 나머지 백성들도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과 규례에 복종할 것을 맹세하고(느 10:28-29), 규례를 정하는데 동참한다(느 10:32-39). 그리고 이어서 예루살렘과 예후드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단과 에스라 사역에 대한 언급을 끝으로 전체를 마감한다(느 11:1-12:26). 이것은 이스라엘 모든 신앙 공동체가 율법과 회개의 필요를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한 정결과 충성이 모든 신앙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요구되는 것임을 강조한다. 여기에서 특히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사람들과 현재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책무와 과업과 정체성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느헤미야 12장 26절에서 에스라 활동의 기록을 결어로서 마무리한다. 이렇게 이 소단락(느 7:4-12:26)도 내적 논리(A-B-A' 구조)를 가지고 전개되어있음을 보여준다.

이어서 느헤미야 12장 27-43절에서 '성벽봉헌제사'를 드림으로서 성벽공사와 관련된 모든 일들의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느헤미야 12장

36) Mark A. Throntbeit, 111-113; Johanna W. H. van Wijk-Bos, 89(느 11:3-12:26의 목록의 기능["links between past and present"]); 김래용, 윗글, 140-141, 145-146.

37) Raymond Brown, *The Message of Nehemiah*, (Leicester: InterVarsity Press, 1998), 194, esp. 204.

38) 느헤미야 7장 73절과 8장 1절에서 '접속사(바브)' + '복수 3인칭 동사'로 서로 연결된다 (7:73, באַעסעבּוּ dwelt); 8:1, באַעיאַסעבּוּ gathered themselves)).

27-43절이 성전봉헌제사를 핵심주제로 하는 독립된 단락이라는 사실은 이 단락이 ‘기쁨’의 봉헌제사로 시작해서 ‘기쁨’의 봉헌제사에 관한 언급으로 마감하며 수미상응의 구조(A // A')를 이루고 있다는 구조적 특징에 기인한다.

A. 느 12:27 (3인칭 복수동사: 주어[사람들]; 기쁨으로 드린 봉헌제사: 비케슈; 사마흐[מִשְׂחָה 기쁨])//

A'. 느 12:43 (3인칭 복수동사: 주어[사람들]; 기쁨으로 드린 봉헌제사: 이즈베후; 사마흐[מִשְׂחָה 기쁨, 5회 언급]).

느헤미야서도 그 기본구조는 에스라 1-6장과 7-10장에 나타난 스토리 전개 패턴과 유사하다. 특히 위에서 살펴본 구조적 요소들과 그 배열 및 전개 순서에서 동일성(sequential coincidence)을 보여 준다. 그러나 율법과 공동체의 중요성이 별도의 단락(느 7:4-12:26)으로 전개되고 삽입되어 앞뒤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그 신학적 의미를 강조하는 특징적 면모를 보여준다. 그러나 느헤미야 1-13장은 또 하나의 중요한 구조적 특징을 보여준다. 그것은 에스라 9-10장에서 볼 수 있었던 최종적 종결부(느 12:44-13:31)³⁹⁾인 ‘율법과 이에 따른 구체적 치리’를 보여줌으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실천적 순종에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자 한다.

이 최종 단락(종결부, 느 12:44-13:31)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구성되어있다 (a // a'--- A).

39) 느헤미야 12장 44절-13장 31절을 한 단락으로 보는 견해: Mark A. Throntbeit, *윳글*, 120-126; cf. Hugh Williamson, *윳글*, 378-389, 391-402(느 12:44-13:14를 한 단락으로 보며, 13장 15-31절을 최종적 개혁의 단락으로 다룬다).

a. 느 12:44-47 (백성들이 수행한 개혁과 치리; 44절: 그날에[바음 하후]; 44절: 율법[토라]; 제사장들, 레위인들, 노래하는 사람들, 성전 문지기) //

a'. 느 13:1-3 (백성들이 수행한 개혁과 치리; 1절: 그날에[바음 하후]; 3절: 율법[토라]; 제사장들, 레위인들, 노래하는 사람들, 성전 문지기) ---

A. 느 13:4-31 (느헤미야가 수행한 개혁과 치리; 제사장들, 레위인들, 노래하는 사람들, 성전 문지기).

느헤미야 12장 44-47절과 13장 1-3절에서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포함한 ‘온 백성들’(12:47, 온 이스라엘[콜 이스라엘])이 율법에 따른 치리를 행한다.⁴⁰⁾ 느헤미야 13장 4-31절에서 느헤미야가 율법에 따라 다양한 치리를 행하였음을 진술한다. ‘그의 두 번째 임직시에 있었던 마지막 그의 치리의 내용’ 곧 앞의 내용과는 시기적으로 구별되는 이 특별한 내용을 마지막 경계의 말씀이 되게 함으로서 이 책(에스라-느헤미야서) 전체의 결론부 역할을 하게 한다. 그리고 이 결론적 단락 안에서 4개의 기도를 통해 신앙고백과 경계의 말씀을 동시에 피력한다(느 13:14, 22, 29, 31). ‘기도문의 인용’으로 시작된 본 책의 서두와 ‘기도문의 인용’(비록 느 1:5-11보다는 짧은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으로 결말을 짓는 느헤미야 1-13장의 고유한 문학적 특징(문체적 수미상응[stylistic inclusio])을 보여준다. 느헤미야 1장 기도의 말미

40) 느헤미야 12장 44절-13장 31절을 하나의 단락으로 보는 견해, J. M. Myers, *Ezra Nehemiah*, AB, (New York: Doubleday, 1965) 205-208; Hugh Williamson, *윳글*, 378-390; Joseph Blenkinsopp, *윳글*, 348-352; Derek Kidner, *Ezra and Nehemiah*, (Leicester: Intervarsity press, 1979), 127-128. 느 12:44-47과 13:1-3이 내용상 각각 독립된 것이지만, 이 양자는 문학적 차원에서 병행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inclusio, [느 12:44, 하토라] // [느 13:3, 하토라]). 동시에 느헤미야 13장 4-31절도 위의 본문에 나타나는 공동의 관심사(제사장, 레위, 노래하는 자; 혼합결혼의 문제)를 내타내고 있으며, 그 치리(개혁)의 내용도 결국 ‘토라’에 입각한 것이라는 차원에서 분리하여 이해할 수 없다(cf. 김래용, “에스라 9-10장과 느헤미야 13장의 특징과 역할”, 43); F. C. Fensham은 느헤미야 13장 1-3절이 13장 4-31절의 좋은 서론임을 인정하지만, 느헤미야 13장 4-31절이 느헤미야의 두 번째 사역의 내용을 다룬다는 타원에서 구별하여 다룬다: F. C. Fensham, *The Book of Ezra and Nehemiah*, NICOT,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2), 259.

(11절)에서 ‘형통’(צלחה)에 대한 간구로 끝나는데, 느헤미야 13장 말미(느 13:31)에서 이에 상응하는 어휘인 ‘복’(טוב)에 대한 간구로 책 전체를 마감한다(느 9장의 기도에서도 ‘ טוב’가 복의 개념으로 나오 [9:25, 35]). ‘하나님께 범죄하였다’(하타)는 개념은 에스라서에는 나오지 않는 반면, 느헤미야서에는 6회 나온다(느 1:6[2회]; 6:13; 9:29; 13:26[2회]). 이 표현도 느헤미야의 종결부에서 다시 나타난다. 이것도 느헤미야 1장과 13장 사이의 병행관계도 보여준다.

느헤미야 12장 44절-13장 31절이 앞의 내용을 반복하며 느헤미야 1-13장뿐만 아니라 에스라-느헤미야서 전체를 아우르는 종결부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1) 느헤미야서 12장 44절과 13장 3절에 나오는 ‘율법’(토라)은 신앙채신과 개혁의 주추로서 느헤미야서뿐만 아니라 에스라서의 핵심 선포이다(스 3:2; 7:6, 10; 10:3; 느 8:1, 2, 3, 7, 8, 9, 13, 14, 18; 9:3, 13, 14, 26, 29, 34; 10: 28, 29, 34, 36).

(2) 성전 자체를 이방의 영향(‘도비아’로 상징됨)으로부터 깨끗케 하려했다는 점(느 13:5-9; 13:22, 30; 참고, 느 2:19; 4:1, 3, 7; 6:1, 2, 5, 12, 14; 12:30, 45)은 동시에 에스라의 관심이었고 에스라 1-6, 7-10장의 중요한 주제였다(스 6:20[정결예식]; 8:35[속죄제물]).

(3) 느헤미야 13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배신 곧 언약 파기의 죄가 언급되며(느 13:4-9; 23-28) 레위인들에 대한 처우의 문제를 다루고(느 13:10-13)과 안식일 준수 문제를 언급한다(느 13:15-22). 이것은 느헤미야 8-9장에서 나오는 내용들이다. 8-9장에서 레위인들의 특별한 지도적 위치가 강조되며(느 8:9, 11; 9:5, 38), 이스라엘의 죄와 회개(느 9:1-3, 5-37)가 강조되고, 언약(느 9:8, 32[38])과 안식일이 언급된다(느 9:14). 이러한 내용들은 에스라 1-10장에서도 나타나는 주제이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죄와 포로와 성전의 파괴와 그에 대한 회개와 회복이 언급되고(스 5:12; 9:1-15[참고, 왕하 17:13-20]), 레위인

들의 역할과 그 중요성(스 1:5; 3:8-13; 6:18-20; 8:15-20, 28-30)이 부각된다.

이 구조체의 두 결론부 (X[스 9:1-10:44]; X'[느 12:44-13:31])는 내용면에서 명백한 병행을 이룬다. 각각 신명기 율법과 ‘암몬과 모압’에 대한 관심이 병행적으로 나올 뿐만 아니라,⁴¹⁾ 문체면에서 이 두 결론부에서 ‘기도문’이 집중적으로 사용되며(문체적 병행 [스 9:1-15; // 느 13:14, 22, 29, 31]), 두 결론부의 기도문들이 공통되는 신관(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바탕으로 전개되어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은혜[테힌나 תהינה] 스 9:8 // 사랑[헤세드 חסד] 느 13:22). 중심 주제면에서 ‘율법’을 바탕으로 한 치리와 개혁이 강조되며(‘미쯔바’ מצוה [스 9:10, 14; 10:3]; ‘토라’ תורה [10:3] // ‘토라’ תורה [느 12:44; 13:31]), 성전과 공동체의 ‘정결’이 개혁의 목적임을 공유하며(스 9:11 [토에바 תועבה] 투므아 טמאה unclean // 느 13:9, 22, 30[반의어: 타헤르 טהר clean]), 양자가 공유하는 그 구체적 개혁의 내용 중의 하나가 이방여인들과의 ‘혼합 결혼 문제’이다. 그리고 이 양자에서 언약이 언급된다([브리트 ברית] 스 10:3 // 느 13:29).

3. 결론

위의 관찰들은, 에스라-느헤미야서는 세 개의 문학 단위체들(스 1-6, 7-10; 느 1-13)이 문학적 신학적 공통점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단일한 문학 구조체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세 개의 병행단락(ABC[스 1-6] // A'B'C'[스 7-10] // A"B"C"[느 1-13])과 두개의 전체적 결어(X[스 9:1-10:44] // X'[느 12:44-13:31])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각 단락들이 보여주는 문학요소

41) 김래용, “에스라 9-10장과 느헤미야 13장의 특징과 역할,” 47-48.

들의 순서상의 일치(sequential coincidence)와 스토리 전개에서 나타나는 동일한 문학적 패턴('서언적 설명문'-'인용문'-'초기의 부분성취'-'목록'-'시행'-'방해'-'극복[성취]'-'감사봉헌제사')은 이들 세 단락이 동일한 편집 경향과 방식에 의해 기록된 책임을 보여준다. 동시에 이 책은 두 개의 특별한 중결부의 병행적 전개(X // X')를 통하여 에스라-느헤미야의 개혁원칙과 계속적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학 구조체 안에서 느헤미야 1-13장은 일련의 내용적 구조적 변화(느 7:4-12:26 또는 기도문들의 활용 등)를 통하여 에스라-느헤미야 사역의 고유한 신학적 메시지를 전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학적 특징들에 관한 관찰이 이 책의 신학을 명료히 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이라고 생각한다.

4. 참고문헌

김래용, "에스라 9-10장과 느헤미야 13장의 특징과 역할", 『구약논단』 통권 38집(2010. 12), 33-53.
 -----, "느헤미야서에 나타난 목록들의 연구", 『구약논단』 통권 43집(2012. 3), 129-152.
 민경진, "에스라-느헤미야서의 문학적 구조분석", 『에스라-느헤미야 어떻게 읽을 것인가?』, HOW 주석, (서울: 두란노, 2009), 35-45.
 -----, "휴 윌리엄슨의 에스라-느헤미야서 편집가설 재고", 『장신논단』 제38집(2010), 41-63.
 -----, "에스라-느헤미야서는 한 권인가, 두 권인가?", 『장신논단』 제19집(2003), 447-461.
 Allen, Leslie C., Laniak, Timothy S. *Ezra, Nehemiah, Esther*, Peabody: Paternoster Press, 2003.

Blenkinsopp, Joseph, *Ezra-Nehemiah*, OTL, London: SCM, 1988.
 Breneman, Mervin, *Ezra, Nehemiah, Esther*, NAC,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3.
 Brown, Raymond, *The Message of Nehemiah*, (Leicester: Intervarsity Press, 1998),
 Carmody, J., Carmody, D. L., Cohn, R. L. *Exploring the Hebrew Bible*,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88.
 Clines, D. J. *Ezra, Nehemiah, Esther*, NCBC, Grand Rapids: Marshall Morgan & Scott, 1984.
 Eskenazi, Tamara C. "The Structure of Ezra-Nehemiah and the Integrity of the Book", *JBL* 107(1988), 641-656;
 -----, *In an Age of Prose*, Atlanta: Scholars Press, 1988.
 Eskenazi, Tamara C., Judd, Eleanore P. "Marriage to a Stranger in Ezra 9-10," *Second Temple Studies 2: Temple and Community in the Persian Period*, 267-285.
 Fensham, F. C. *The Book of Ezra and Nehemiah*, NICOT,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2.
 Holmgren, Fredrick Carlson, *Israel Alive Again*, Grand Rapids: Eerdmans, 1987.
 Japhet, Sara, "Composition and Chronology in the Book of Ezra-Nehemiah," D. J. A. Clines/P. R. Davies(eds), *Second Temple Studies 2: Temple and Community in the Persian Period*, JSOTSup., 175, Sheffield: JSOT Press, 1994, 189-216.
 Kidner, Derek, *Ezra and Nehemiah*, Leicester: Intervarsity press,

1979.

Myers, J. M. *Ezra Nehemiah*, AB, New York: Doubleday, 1965.

Smith-Christopher, D. L. "The Mixed Marriage in Ezra 9-10 and Nehemiah 13: A Study of the Sociology of Post-Exilic Judaeon Community," D. J. A. Clines/P. R. Davies (eds), *Second Temple Studies 2: Temple and Community in the Persian Period*, JSOTSup., 175, Sheffield: JSOT Press, 1994, 243-265.

Steinmann, Andrew E. *Ezra and Nehemiah*, Concordia Commentary, Saint 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2010.

Throntbeit, Mark A. *Ezra-Nehemiah, Interpretatio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2.

VanderKam, J. "Ezra-Nehemiah or Ezra and Nehemiah?", *Priests, Prophets, and Scribes: Essays on the Formation and Heritage of Second Temple Judaism in Honour of Joseph Blenkinsopp*, ed. Joseph Blenkinsopp, Sheffield: JSOT Press, 1992, 55-77.

van Wijk-Bos, *Ezra, Johanna W. H. Nehemiah, and Esther*,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8.

Williamson, H. G. M. *Ezra-Nehemiah*, WBC, Nashville: Thomas Nelson, 1985.

검색어

문학적 패턴

스토리 전개

순서상의 동일성

에스라 1-6

에스라 7-10

느헤미야 1-13.

The Literary Pattern of the Story of the Book of Ezra-Nehemiah, and its Theology

Cheol-Woo Park, Ph.D.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Korea Nazarene University

The Book of Ezra-Nehemiah is shown to consist of three basic literary units (Ezra 1-6, 7-10; Neh 1-13) interconnected with each other to form a single literary corpus. It takes the form of three parallel literary units (ABC [Ezra 1-6]//A'B'C' [Ezra 7-10] //A"B"C" [Neh 1-13]) and two parallel conclusions (X [Ezra 9:1-10:44]//X' [Neh 12:44-13:31]) being unified. Each of the three units shows the sequential coincidence of literary elements and the similar literary pattern in the development of the story (1. introductory statement; 2. quotation; 3. initial partial fulfillment; 4. list; 5. implementation; 6. obstacle; 7. overcoming [final fulfillment]; 7. worship of thanks and devotion). These literary aspects show that the Book of Ezra-Nehemiah is a document written by the same literary tendency and methods of compilation. At the same time, through the two interconnected parallel conclusions of the

book(X/X'), it shows the theological particularity which lays emphasis on the principle of Ezra-Nehemiah's religious reformation and on the importance of continual efforts for the reformation of the faith community and each one of its members as well.

In Nehemiah 1-13, the compiler succeeded in delivering the unique theological message of Ezra-Nehemiah by means of the tactical change of the literary structure and the organization of the basic story pattern, such as Nehemiah 7:4-12:26 (A-B-A' structure), his use of prayer (stylistic inclusio), and so on. These literary particularities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clarity of the theology of the Book of Ezra-Nehemiah.

Keywords

literary pattern

story development

sequential coincidence

Ezra 1-6

Ezra 7-10

Nehemiah 1-13

- 투고일: 2016년 1월 16일
- 심사일: 2016년 1월 31일
- 게재 확정일: 2016년 2월 9일



▶구약신학의 주제◀

한동구(평택대) 구약성서의 기도의 신학: 자기 비움의 기도, 하나님 통치의 수용을 통한 신적 계시의 확신성(삼상 1장)